

主要輸出商品의 比較優位分析

—主要品目的 Relative Share Index를 中心으로—

林 鍾 哲

I. 輸出貿易의 變化(1962~1967) II. 主要輸出商品의 分析 1. 輸出上 比重과 品目變動 2. 産業上 比重 3. 輸出單價 및 數量의 變化 4. 輸出品目變動의 理論의 考察	目 次 III. 主要輸出商品의 比較優位 1. 主要輸出商品의 relative share 2. 輸出入比率指數에 의한 分析 3. 主要輸出市場에서의 market share IV. 結論
---	---

I. 輸出貿易의 變化(1962~1967)

1962 년을 고비로 한국경제는 輸出에 대한 期待가 매우 커졌고 그것은 뒤이어 輸出第 1 主義라는 政策口號下에 經濟政策의 第 1 線에 具體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크게 보아 세가지 經濟的 要因에 연유하는 것이니 하나는 한국경제가 스스로 所望하는 水準으로 經濟成長率을 提高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貯蓄을 國內的으로 공급할 수 없는 低所得國家라는 것이고⁽¹⁾ 둘째는 그 經濟構造에 있어서도 第 1 次 生産財産業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미미한 低生産力國家이어서 그 經濟成長率의 提高는 外國으로부터의 資本財輸入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²⁾는 内部的 要因의 作用을 들 수 있고 끝으로 그 당시까지 國內 總投資率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外部的 源泉으로부터의 貯蓄供給이었던 無償의 公共援助가 1958 년 이후 격화된 미국의 國際收支逆調를 반영하여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

(1) 1953 년에서 1960 년에 이르는 8 년간에 弗貨表示로 國民總生産은 1,540,188 千달러에서 2,331,208 千달러로 51.4%밖에 커지지 못했다. 따라서 그사이 22.0%나 증가한 人口變化를 감안하면 1 人當 所得은 1953 년의 69.8 달러에서 1960 년의 82.6 달러로 고작 19.5% 늘었을 뿐이다. 第 1 次 貧困線을 벗어나기 힘든 이러한 소득수준에서 成長率을 提高하여 經濟的 離陸을 성취하기에 충분한 貯蓄이 自發的으로 動員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韓國銀行調查部의 推計에 의하면 1952~1960 년간의 貯蓄率은 年平均 3.6%에 불과하였다. Cf.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計定』, 1967 年, pp. 172-173, 207.

(2) 1960 년에 있어서도 重化學工業의 比重은 27.1%에 불과 하였고 특히 機械工業의 비중은 3.0%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機械工業의 自給率은 30.8%로서 1941 년의 24.7%에 비해서 약간 개선된 형편이었다. Cf. 韓國産業銀行, 『鑛業 및 製造業實態調查綜合報告書』, 1960 年版, pp. 120~127 (機械工業의 自給率은 當年の 電氣機器除外機械輸入 28,412 千달러에 그해의 패리티換率 1 달러對 105.8 원을 곱한 元貨換算值 3,005,990 千원과 그해의 國內生産額 1,341,785 千원의 合計를 總供給으로 보고 算出한 것임).

하였다는⁽³⁾ 外部的 要因의 작용을 들 수 있다. 한편 1962년부터 실천에 옮겨진 第1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은 4,947 億원의 投資를 하였는데, 첫째로는 計劃의 開發産業의 投資의 輸入依存도가 높다는 사실⁽⁴⁾과 둘째로는 計劃期間중 1,037,000 千달러를 計上하였던 無償의 公共援助受入이 실지로는 832,789 千달러 밖에 供與되지 않아 19.7%의 蹉跌을 초래하였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輸出을 통한 對外支拂手段의 획득에 대한 壓力이 점차 加증되기 시작하였다.

輸出振興에의 熱望은 일련의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의 法制的 支援, 整備로 위선 나타났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1962년 3월 16일 제정된 輸出振興法 및 동년 4월 24일 제정된 貿易振興公社法등이었다.⁽⁵⁾ 수출진흥법에서는 輸出品製造用 原料輸入에 필요한 外貨를 外換需給計劃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할당, 매각토록 하고 일정한 수출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海外支社 또는 海外出張所를 설치하도록 허가하고 또한 常設民間貿易使節團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입무역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무역자금을 차입할 경우 일정한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입무역업자 3인 이상이 그 債務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때는 貸出銀行은 그 연대보증만으로써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 소극적인 방법으로서는 무역업자가 銀行保有外貨로 수입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수출실적이 없으면 일체의 수입을 못하도록 하였고 實需要者의 自家生産에 필요한 原料機材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설, 생산능력 및 年間 所要量등 수출진흥법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實需要者輸入을 허용하는등 輸入規制政策도 강구하였다. 한편 수출진흥을 위한 海外市場의 조사, 개척과 輸出入去來의 알선 등을 담당하여 國際收支의 개선과 經濟自立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全額政府出資에 의한 자본금 2 億원의 大韓貿易振興公社가 1962년 6월 1일자로 발족하였다. 이밖에도 綿布, 合板, 綿絲, 안경테, 水晶石, 種子, 醬, 牛骨

- (3) 1953~1960년에 있어 國內總投資率은 年平均 11.9%였는데, 그중 78.6%가 海外貯蓄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無償의 公共援助에 의한 것이었다. 外國援助는 1953~1960년間に 있어 年平均 1,930,453 千달러에 이르렀으며, 가장 集中的으로 공여되었던 1955~1958년에는 年平均 316,894 千달러, 1人當年額으로는 14.2 달러로서 마살計劃에 의하여 西歐가 거의 같은 期間(1948. 4~1952. 6)에 受入한 受援規模 1人當年額 12.0 달러를 20%가까이 上廻하였다. 國民總生産에 대한 受援額의 크기는 1953~1960年間に 있어 무려 13.5%에 달하였다. 그러나 主要한 授援國이던 미국의 國際收支가 1958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후 外援規模를 줄이자 受援額도 1961~1967년에는 年平均 161,295 千달러로 크게 줄었고 國民總生産에 대한 크기는 5.1%로 하락하였다.
- (4) Cf. United Nations,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New York, United Nations, 1964, p. 4.
- (5) 이밖의 法的 支援措置로서는 1962년 5월 7일 수출진흥법시행령의 개정과 매를 같이 하여 무역법시행령도 같은 날자로 개정하여 1961년의 수출실적 5천달러 미달의 무역상사 120社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10월 4일자로 수출검사법을 개정하여 수출품의 品質 및 對外聲價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4월 24일자로 國際觀光公社法을 제정하여 국제수지개선의 一環으로서 관광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企圖하였으며, 1월 6일에는 軍納促進을 도모하고자 臨時措置法을 제정하여 軍納促進委員會를 商工部에 두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粉 등 20개 품목을 새로이 輸出獎勵補助金交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⁶⁾ 輸出金融면에서도 종래 日邊 3錢 5厘에서 3진 3리로 인하하도록 3월 2일에 議決하는 등 갖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적 조치와 병행하여 무역진흥을 위한 經濟外交도 강화되었다. 그 결과 印度, 「캄보디아」 「콩고」 「나이지리아」 「멕시코」 「알젠틴」 등 여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同年 11월 15일에는 콜롬보計劃에 正式會員國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한편 2월 20일~3월 20일까지 개최된 「트리폴리」國際博覽會와 4월 21일~10월 21일까지 개최된 「씨애틀」의 21世紀博覽會에 출품하였고 3월 초순에는 「버마」 「말레이」 「싱가폴」 등에 그리고 5월에는 西歐諸國에 民間貿易使節團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같은 수출진흥정책은 1963년 이후에도 다소의 수정을 하여 가면서 계속되었다. 1963년에는 광산물을 수출장려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교부율을 인하하는 대신 保稅加工 및 加工輸出品에 대한 교부율을 인상하였으며 輸出實績링크制를 1963년초부터 전면적으로 채택하였으며 1964년 5월 4일에는 1달러에 130원 하던 對美換率을 255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종래의 固定換率制度를 1달러당 255원을 下限으로 하는 單一變動換率制度로 바꾸었으며 그에 대한 補完措置로서 6월 30일부터는 臨時特別關稅法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65년 이후에는 직접적 통제방식에서 간접적인 통제방식으로 변화하여 輸出入링크制의 폐지, 수출장려보조금제도의 폐지, local credit 制度의 채택, 海外支社의 現地活動에 필요한 資金供給을 뒷받침하기 위한 stand-by credit 制度의 실시, 수출산업에 대한 特別減價償却制度의 신설, 關稅의 代置免稅制度의 채택, 13개 輸出特化産業의 選定과 그 支援, 輸出品製造業體에 대한 輸入原料配定보너스制의 채택, 新市場開拓業者에 대한 輸出獨占權의 6개월로부터 1년으로의 연장등 여러가지 정책조치가 강구되었다.

1966년에는 輸出目標 2억 5천만달러 達成을 위한 體制確立의 一環으로 品目別所管政府部長官責任制실시, 輸出振興局의 설치와 海外市場課의 商易局內신설, 무역윤리위원회 설치 및 무역윤리양양의 달 設定, 둘째로 무역행정의 近代化를 위하여 수출보험제도의 계속 검토, 무역업자와 생산업자사이의 紐帶強化, 原資材事前確保策실시, 輸出品의 流通

(6) 1962년 上半期에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요령중 추가된 品目은 다음과 같다.

一類……綿布, 合板.

二類……내장석, 綿絲, 소모사, 안경테.

三類……담뱃, 水晶石, 魚鱗, 種子, 新聞 및 雜誌, 엘메나이트, 구두솔.

四類……銀杏, 잣, 牛骨粉, 黑豆, 보빙, 꽃포크기.

1962년중 수출장려보조금 지급신청은 7,241건에 666百萬원에 달하였으며, 1963년 1월 19일까지 전액이支給되었다.

圓滑策강구, 세계로 수출구조의 개혁을 위하여 原資材의 國內調達促進, 原資材導入의 한계명시, local credit 제도 실시의 效率化, 네째로 수출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延拂條件으로의 수출산업시설제도입(D.A. 1000 만달러 限度), 수출실적 5% 이내에서 수출개선에 필요한 新原料나 이의 부족물 수입의 우선권 부여, 수출용원자재의 국내생산신고제 실시, 끝으로 금융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原資材導入에 따른 國內 usance 의 80%까지의 認可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는 66년도 輸出振興綜合施策이 마련되었다.

한편 1966년부터는 輸出擴大會議가 定期的으로 개최되어 수출진흥을 위한 제반수단이 모색되고 1967년에는 外換專擔銀行인 韓國外換銀行이 설립되고 또 수출진흥을 위한 長短期에 걸친 研究를 위하여 韓國貿易研究所가 설립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었다.

이같이 精力的으로 강구된 政策保護에 힘입어 1962년 이후의 수출은 급격히 늘어갔다. 즉 1952~1961년중을 통하여 年平均 26,630千달러, 가장 많았던 것이 1961년의 40,878

<第1表> 輸出의 推移 (단위: 千 달러)

연 도	수출액	수출증가율(%)	연 도	수출액	수출증가율(%)
1952	27,733	42.4	1961	40,878	65.7
1953	39,585	-38.8	1960	32,827	24.5
1954	24,246		1962	54,813	34.0
1955	17,966	-25.9	1963	86,802	58.3
1956	24,595	36.9	1964	119,058	37.2
1957	22,202	-9.8	1965	175,082	47.1
1958	16,451	-25.9	1966	250,334	42.9
1959	19,812	20.4	1967	320,229	27.9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號에서 作成.

千달러와, 1953년의 39,585千달러에 불과하여 3천만달러臺 未滿에서 低廻하던 수출은 1962년 이후에는 해마다 현저히 증가하여 1962년의 54,813千달러에서 1967년에는 320,229千달러로 크게 늘었다. 한편 第1表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1950年代에 있어서는 평균 2천 6백만달러臺의 수출을 유지하고 있었다지만 수출추세는 安定的인 것이 못되고 해마다 增減을 되풀이하다가 1960年代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꾸준한 증가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1953~1961년까지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年平均 9.9%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하여 1962~1967년간에 있어서는 年平均 41.2%라는 급격하고도 持續的인 수출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꾸준한 증가를 보이게 된 것은 1950年代後半에 활발하게 진행된 소비재공업중심의 工業化가 1958년 이후 國內에서의 供給過剩을 출현케 하

고 그 결과 그 剩餘生産物의 해외시장에서의 處分이 긴급한 국민경제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도 기인하는 바 없지 않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物質的 基盤을 토대로 강력한 輸出드라이브를 전개한 政策努力에 힘입은 바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一國이 수출드라이브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수요가 활발한 第2次産品을 중심한 수출상품구조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Nurkse 교수의 지적하는 바⁽⁷⁾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20세기의 貿易類型에서 第1次産品이 數量 및 價格의 양면에서 그 輸出伸張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졌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人爲的인 努力에 의한 輸出增加를 정책목표로 삼은 1962년 이후 특히 1963년을 계기로 한국의 수출상품구조가 第2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2次産品중심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적절한 政策措置였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출상품구조에서 第1次産品이 갖는 비중의 변화는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第2次産品은 1962년의 27.0%에서 1963년에는 51.7%, 1965년에는 62.3%, 1967년의 70.1%로 커갈 때 農産物은 1962년의 23.0%에서 1967년의 4.7%로 크게 떨어진 반면 鑛産物은 28.0%에서 10.5%로 그다지 커다란 하락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第1次産品의 범주에 든다고는 하지만 鐵鑛, 니켈鑛, 보크사이트 및 알루미늄鑛, 鉛鑛, 亞鉛鑛, 망강鑛, 重石鑛 및 기타의 卑金屬鑛 등

(7) 第1次産品에 대한 수요가 比例的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유로 Nurkse는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를 들고 있다. ① 先進經濟에 있어 工業生産의 구성이 輕工業으로부터 重工業爲主로 변화하는데 重工業은 完成財의 原料依存度가 경공업보다 낫다. ② 先進工業國의 總產出高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해서 原料需要는 國民總生産의 증가를 따르지 못한다. ③ 수많은 農産物에 대한 消費者需要的 所得彈力性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④ 農業保護主義가 低開發國家群으로부터 先進國家群으로의 原始生産物輸入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 ⑤ 天然原料의 工業의 使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節約이 실현되고 있다. ⑥ 先導的인 工業部門에서 合成原料 또는 기타의 人造原料에 의한 天然原料의 代替가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Cf. R. Nurkse,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pp. 294-295. 그 결과 1952-54~1960-61년에 있어 原料使用은 42% 증가되었는데 棉花 18%, 羊毛 17%, 紬15%, 動物性油 29%, 魚油 -3%, 植物性油 26%, 皮革 4%, 天然 고무 5%, 角材 12%, 레이용 20%, 鐵鋼 39%, 亞鉛 26%, 錫 30%, 鉛 16%, 銅 41%, 木材 펄프 53%, 알루미늄 61%를 제외한 모든 在來의 自然原料의 소비증가율이 平均이하였음에 반하여 新原料는 合成纖維 367%, 合成 고무 108%, 플라스틱 189%, 合成劑 101%로 평균을 훨씬 上廻하는 消費量增加를 보이고 있다. cf. *Economic Review*, May 1964, p. 36.

(8) Morgan의 계산에 의하면 1937년을 100.0으로 했을 때 工業的 先進國(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및 덴마크 除外)과 開發途上國의 實質輸出購買力指數의 변화는 236대 179로 개발도상국에게 24.2% 交易條件이 악화되고 있다. Cf. T. Morgan, *Trends in Terms of Trade and their Repercussions on Primary Producers in International Trade Theory in a Developing World*, ed. by Roy Harrod and D.C. Hague, Macmillan and Co, London, 1963, p. 95. 한편 1913년을 100.0으로 했을 때 第1次産品의 世界輸出數量指數는 1957-58년에는 181에 불과한데 第2次産品의 그것은 251로서 第1次産品이 27.9%나 뒤떨어지고 있으며 世界輸出單價指數는 第1次産品이 254이고 第2次産品이 261로서 第1次産品이 2.8%가량 떨어지고 있다. cf. A. Maizels, *Recent Trends in World Trade in International Trade Theory in a Developing World*, ed. by Roy Harrod and D.C. Hague, Macmillan and Co, London, 1963, p. 47.

<第2表>

輸出商品構造의 變化

(단위: 千달러)

	총액	농산물	구성비	수산물	구성비	광산물	구성비	공산물	구성비
1962	56,702	13,041	23.0	12,474	22.0	15,876	28.0	15,312	27.0
1963	84,349	11,229	13.3	13,086	15.5	16,463	19.5	43,648	51.7
1964	120,851	12,562	10.4	24,050	19.9	21,917	18.1	62,322	51.4
1965	180,450	15,695	8.7	24,738	13.7	27,645	15.3	112,372	62.3
1966	255,751	24,336	9.5	37,536	14.7	34,195	13.4	159,684	62.4
1967	358,592	16,971	4.7	52,834	14.7	37,162	10.5	251,175	70.1

資料: 大韓貿易振興公社, 『輸出市場』, 1967.

工業化의 基盤이 되는 유한한 枯渴性資源이 原鑛石 그대로 또는 거의 加工되지 않은 채 수출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 경제의 장래를 위하여 有益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第1次產品중 鑛山物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2년의 38.3%에서 1967년의 35.1%로 3.2% 포인트 밖에 하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수출상품구조가 아직도 더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輸出商品構造의 변화는 의당 交易對象國의 변화를 예상케 할 수 있는 것이나 第3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先後進國別로 본 한국의 輸出貿易의 방향은 전혀 변화가 없다싶이 하였다. 더구나 선진국의 비중이 1962년의 78.2%에서 1967년의 82.8%로 4.6%포인트 커진 것은 5·16 이후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면서 활발히 전개한 對中立國外交 및 美, 日을 제외한 第3國과의 經濟外交強化가 실질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實證하며, 둘째로 비록 수출상품구조가 第2次產品중심으로 高度化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여전히 加工度가 지극히 낮은 半製品인 工業製品 아니면 勞動集約的인 前段階的 工產品中心으로

<第3表>

輸出貿易의 方向

(단위: 千달러)

	총액	선진국	구성비	개발도상국	구성비
1962	54,813	42,888	78.2%	11,925	21.8%
1963	86,802	57,423	65.9	29,559	34.1
1964	119,058	90,313	75.9	28,645	24.1
1965	175,082	130,596	74.6	44,486	25.4
1966	250,334	203,021	81.8	47,313	18.2
1967	320,229	265,249	82.8	54,980	17.2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號에서 作成.

되어 있어 本質的으로는 第1次產品의 수출과 별반 다른없는 국민경제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示唆한다.⁽⁹⁾ 즉 이 기간중의 수출증대는 50年代에 건설된

(9) Leontief의 遊說은 이러한 推論을 부인하므로 한국의 수출상품의 勞動集約度 및 資本集約度에 관

輕工業부문의 過剩生産力을 위한 排出口로서만 기능하였지 「成長의 機關」 engine of growth⁽¹⁰⁾으로서의 무역의 本來的 機能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主要輸出商品의 分析

1. 輸出上 比重과 品目變動

한국은 그 經濟地理的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소위 南農北工이니 또는 南綿北羊이니 했던 日帝時代의 植民地主義의 單一栽培生産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다른 開發途上國에서 흔히 보듯 생산 및 수출의 單一栽培的 및 單一商品輸出의인 성격은 농후하지 못하였다.⁽¹²⁾ 그러나 크게 본다면 1960年代初에 있어서조차도 생산체제에 있어서의 原始生産物生産業 偏重 및 수출에 있어서의 第1次產品輸出爲主라는 특징은 면할 도리가 없었고,⁽¹³⁾ 따라서 工業製品輸入·未加工原料輸出이라는 전형적인 植民地的 經濟構造를 탈피할 수가 없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몇개 品目에 대한 輸出依存은 매우 컸다. 즉 第4表에서 알

한 實證的인 檢證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만 Heckscher-Ohlin의 定理를 한국경제가 人口過剩資源少·資本不足型의 開發途上國이라는 一般의 徵特위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 (10) R. Nurkse,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p. 283.
- (11) 물론 1962~1967년 사이에 製造業生産額은 859.5 억원에서 1854.9 억원으로 115.8% 커졌고 (1965年 不變要素費用에 의한 國內總生産중 製造業의 크기) 産業構造에 있어서도 製造業은 1962년의 15.0%에서 1967년의 20.6%로 5.6% 증가되었지만 그것은 同期間중 933,276 千달러가 확정되고, 그 63.1%에 해당하는 589,352 千달러가 실제로 導入된 借款에 의한 工業建設에 힘입은 바가 크지 결코 輸出增大를 통하여 誘發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外資實際導入額의 國民總生産에 대한 比는 1962-67년에 있어 3.02%가 되며 製造業產出高에 대한 比는 平均 18.0%가 된다. 한편 同期間중 第2次產品輸出에 의한 外貨稼得總額은 276,248 千달러로서 外資導入實績의 46.8%에 불과하다.
- (12) Venezuela에 있어 石油수출이 수출총액중 차지하는 비중은 1958년에 있어 91%이었고, 또 그것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40.1이었고, Cuba의 설탕수출이 수출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77%,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그것은 27.0%에 이르렀으며, Ceylon의 茶수출이 수출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66%,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그것은 21.8%였다. cf. C.P. Kindleberger, *Foreign Trade and National Econom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1962. 한국 수출무역에서 單一輸出商品의 비중이 가장 컸던 것은 1962년의 쌀 수출이 차지했던 16.3%이고 그다음 이 1958년에 重石輸出이 차지했던 14.9%인데 그것이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는 각각 0.35% 및 0.11%에 불과했다. 이것은 한국의 輸出依存度가 他國보다 낮다는데는 물론 기인하지만(예컨대 Venezuela의 48.3%나 Ceylon의 50%에 비해 한국은 7.6%에 불과했다. 但 모두 1958년 현재) 單一栽培·單一輸出의 偏倚가 심하지 않았다는데도 크게 基因한다.
- (13) 1961년에 있어서조차도 農林水産業 및 鑛業의 國內總生産附加價值構成比는 48.0%이었고 第1次產品의 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0%로 압도적으로 컸다.
- (14) 1961년에 있어서조차도 工業製品輸入比는 55.1%이었고 工業製品輸出比는 15.0%이었다.

수 있듯이 1961년에 있어 重石을 비롯한 鐵鑛, 生絲, 絹 등 10개 品目の 수출액 合計는 22,161千달러로서 수출총액 40,878千달러의 54.2%를 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輸出商品構造를 보면 10개 品목중 合板을 제외한 9개 品목이 第1次產品이었고 金額面에서 보면 第1次產品 94.5% 對 第2次產品 5.5%로서 압도적으로 第1次產品의 비중이 컸다.

〈第4表〉 1961년의 主要輸出商品

品 目		金 額	輸出總額중 차지하는 比
		千달러	%
重 石		4,498	11.02
鐵 鑛		4,252	10.40
生 絲		2,849	6.97
鹽 藏 魚 介 類		2,502	6.12
生 豚		2,464	6.02
鮮 魚		1,274	3.11
合 板		1,217	2.98
寒 天		1,142	2.79
豚 毛		1,070	2.61
김		893	2.19
合 計		22,161	54.2
輸 出 總 計		40,878	100.0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5年版.

특정한 商品에 대한 過度한 輸出依存은 그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第5表는 이를 표시하고 있는데 1962년에 있어서는 쌀을 위시한 10個 主要品目の 수출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4%로까지 커지고 있다. 그 후 1963년과

〈第5表〉 主要輸出商品의 推移 (1962~1967)

1962			1963			1964		
品 目	金 額	輸出總額에의 比	品 目	金 額	輸出總額에의 比	品 目	金 額	輸出總額에의 比
	千달러	%		千달러	%		千달러	%
쌀	8,925	16.28	鋼 板	8,290	9.55	合 板	11,395	9.57
生 絲	3,962	7.23	鐵 鑛	5,912	6.81	綿織物	11,119	9.34
鐵 鑛	3,849	7.02	合 板	5,833	6.72	鐵 鑛	5,989	5.03
鮮 魚	3,446	6.29	生 絲	4,662	5.37	生 絲	5,838	4.90
重 石	3,374	6.16	綿織物	4,289	4.94	김	5,504	4.62
無煙炭	2,740	4.99	生 豚	3,676	4.23	葉煙草	4,688	39.4
乾 魚	2,485	4.53	鮮 魚	3,209	3.69	重 石	4,654	3.91
合 板	2,289	4.17	重 石	3,075	3.54	鮮 魚	4,124	3.47
綿織物	1,834	3.34	男子用外衣	2,729	3.14	貝 類	4,029	3.39
寒 天	1,322	2.41	無煙炭	2,578	2.97	人 髮	3,486	2.93
合 計	34,226	62.4	合 計	44,253	50.9	合 計	60,826	51.1
輸出總額	54,813	100.0	輸出總額	86,802	100.0	輸出總額	119,058	100.0

1965			1966			1967		
品 目	金 額	수출총액 에의 比	品 目	金 額	수출총액 에의 比	品 目	金 額	수출총액 에의 比
合 板	18,030	10.29	合 板	29,880	11.94	合 板	36,418	11.37
綿織物	10,522	6.01	編物製品	15,978	6.38	編物製品	24,979	7.80
銅 板	10,195	5.82	假 髮	12,022	4.80	假 髮	22,724	7.09
生 絲	6,794	3.88	生 絲	11,632	4.64	生 絲	14,873	4.64
男子用內衣	6,762	3.86	綿織物	10,121	4.04	男子用內衣	13,910	4.34
鐵 鑛	6,753	3.86	重石鑛	9,536	3.81	綿織物	12,591	3.93
重 石	6,356	3.63	김	8,710	3.48	鮮 魚	12,461	3.89
鮮 魚	6,066	3.46	鮮 魚	7,669	3.06	重石鑛	11,027	3.44
編物製品	5,575	3.18	男子用內衣	7,226	2.88	人造織物	9,853	3.08
전오징어	4,491	2.56	銅 板	7,126	2.84	維織物	8,139	2.54
合 計	81,544	46.6	合 計	119,900	47.6	合 計	166,975	52.3
輸出總額	175,082	100.0	輸出總額	250,334	100.0	輸出總額	250,334	100.0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號에서 作成.

1964년에 있어서는 50.9%와 51.1%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가 1964년에는 일단 46.6%로 하락을 보인 다음 1966년부터는 47.9%로 다시금 점차 커지기 시작하여 1967년에는 52.3%로 회복되었다. 그리하여 1962~1967년에 있어 10個主要品目の 수출액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평균 51.9%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61년에 있어 9對 1이란 상태를 보이던 10個 主要輸出品目の 産業別 構成은 1962년과 1964년에는 第1次產品 8對 第2次產品 2로 개선되었고, 1965년 이후에는 5對 5로서로 반반을 차지하였다. (1963년에는 예외적으로 第1次產品 6對 第2次產品 4이었다.) 한편 第1次產品과 第2次產品의 비중을 金額面에서 보면 1964년까지는 第1次產品의 비중이 컸다가 1965년부터는 第2次產品의 그것이 커지고 있다. 즉 1962년의

<第6表> 主要輸出品 構造變化

年 度	品 目		金 額	
	第1次 產品	第2次 產品	第1次 產品	第2次 產品
1961	9	1	94.5	5.5
1962	8	2	88.0	12.0
1963	6	4	52.3	47.7
1964	8	2	63.0	37.0
1965	5	5	37.4	62.6
1966	5	5	41.3	58.7
1967	5	5	41.5	58.5

資料：第5表와 同.

88.0% 對 12.0%에서 第1次產品수출의 비중이 傾向적으로 하락하여 1963년에는 63.0% 對 37.0%이었다가 1964년에는 37.4% 對 62.6%로 反轉된 이후 계속 第2次產品이 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個 主要輸出商品의 해마다의 變動를 보면 第7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년에는 1961년에 비하여 鹽藏魚介類, 生豚, 豚毛, 김 등 4個品目이 탈락되고 그 대신 쌀, 無煙炭, 乾魚, 綿織物 등 4個品目이 새로 등장하여 40%의 變動率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1963년에 3個品目이 신규로 등장하고 3個品目이 탈락한 것을 예외로 하면 1962~1965년까지는 해마다 4個品目씩 탈락되고 신규등장하였다가 1966년 및 1967년에는 계속해서

〈第7表〉 主要輸出商品構成의 變化

年 度	新 規 登 場 品 目	脫 落 品 目	變 動 率
1962	쌀·無煙炭·乾魚·綿織物	鹽藏魚·生豚·豚毛·김	40%
1963	鋼板·生豚·男子用外衣	쌀·乾魚·寒天	30%
1964	김·葉煙草·人髮·貝類	生豚·男子用外衣·無煙炭·鋼板	40%
1965	鋼板·男子用內衣·編物製品·乾오징어	김·葉煙草·貝類·人髮	40%
1966	假髮·김	鐵鑛·乾오징어	20%
1967	신발류·人造纖維織物	鋼板·김	20%

資料：第5表와 同.

品目變動率은 20%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輸出趨勢가 安定되었다거나 市場이 확보되었다고는 速斷할 수 없으나 1966년을 고비로 그전에 비하여 수출추세가 好轉되어 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한편 1962년 이후 신규로 10大輸出商品으로 등장한 17個品目중 第1次產品은 쌀, 無煙炭, 乾魚, 生豚, 김, 葉煙草, 貝類, 乾오징어, 人髮 등 9個品目이고 第2次 產品은 綿織物, 鋼板, 男子用外衣, 男子用內衣, 編物製品, 人造纖維織物, 신발류 및 假髮 등 8個品目인데 1967년까지에는 第1次產品은 모두가 탈락되어 버렸고 第2次 產品중에는 鋼板과 男子用 外衣를 제외한 綿織物 男子用內衣 등 6個品目이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第1次 產品에 비하여 第2次 產品이 安定된 海外市場과 國內生産構造를 가진 유망한 輸出對象品이라는 사실을 推論할 수 있는데 이는 第一次產品의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下落이라는 일반적인 현상 및 추세와도 합치되는 사실이다.

끝으로 1962~1967년을 통하여 계속 10大輸出商品중에 머무를 수 있었던 商品은 合板, 綿織物 등 第2次 產品은 두가지 뿐이고 第1次 產品은 鮮魚, 生絲 및 重石의 세 品目이 있어 도합 5個品目이다. 이들 5個品目の 輸出額의 變化를 보면 合板은 1962년의 2,289千

달러에서 1967년의 36,418千달러로 15.9배나 커졌고 綿織物은 1,834千달러에서 12,591千달러로 6.9배가 늘어났으며 生絲는 3,962千달러에서 14,873千달러로 3.7배 커졌고 鮮魚는 3,446千달러에서 12,461千달러로 3.6배 커졌으며 重石은 3,374千달러에서 11,027千달러로 3.3배 늘어났다. 그동안의 수출증가는 54,813千달러에서 320,229千달러로 5.8배가량이었으므로 合板과 綿織物만이 평균이상의 伸張率을 기록하고 있다. 順位로 보면 合板이 1962년의 第8位에서 1963년의 第2位를 거쳐 1964년에 第1位로 진출한 이후 계속 그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綿織物은 1962년의 第9位에서 1963년에는 第5位로 진출한 후 1964~1965년간 第2位에 머물렀다가 1966년에는 第5位, 1967년에는 第7位로 하락하고 있으며 生絲는 1962년의 第2位에서 1963년에 第4位로 떨어진 이후 계속 제4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鮮魚는 1962년의 第4位에서 1963년의 第7位로 轉落한 이후 계속 下位에 머무르고 있으며 重石은 1962년의 第5位에서 차츰 轉落하여 1967년에는 第8位로 떨어지고 있다. 相對的으로 볼 때 合板, 綿織物, 生絲, 鮮魚, 重石중 合板과 生絲가 가장 安定的인 輸出基盤을 國內外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産業上 比重

「리카도」이래의 比較生産費說은 一國의 實質生産費가 모든 産業部門에 있어 他國의 실질生産비를 上廻하더라도 生産費比率의 差가 있기만 하면 그 나라는 國際貿易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¹⁵⁾ 그러나 「린더」의 指摘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같은 比較生産費說이 그나라의 絶對的 生産力의 一般水準이 실제로 외국에서 需要되는 財貨의 충분한 量을 생산할 수 있기에 충분한 높이에 있다는 것을 暗黙裡에 가정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¹⁶⁾ 이러한 조건은 한국경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수출무역에 있어서는 輸出品生産에 있어서의 附加價値가 마이너스의 値에 가까웠을만큼, 바꾸어 말한다면 輸出生産에 대한 投入輸入의 必要量이 종국적으로 수출에서 稼得하는 이상의 外換을 요구할 정도로 絶對的 生産力이 낮은 産業에 있어서조차도 輸出擴大가 여러 해에 걸쳐 경험된 일이 있기 때문이다.⁽¹⁷⁾ 絶對的 生産力의 一般水準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은 製造品의 相對價格構造가 代表的 需要의 理論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

(15) 織物 및 포도주生産에 관한 영국과 볼추간의 例는 그 具體的 實證이다. D. Ricardo,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951, Sraffa edition, Cambridge, pp. 134-135.

(16) S.B. Linder, *Trade and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Praeger, New York, 1966, 日譯書 p. 32.

(17) 鋼材의 越南輸出의 경우 國內市場으로의 漏出 기타로 인한 亡失을 일단 무시하고 外換의 受拂만을 考察한다면 輸出用鋼材生産의 附加價値는 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保稅加工輸出一般에서 顕著하게 나타나게 된다.

다는 「린더」說에 근거한 것인데⁽¹⁸⁾ 이 學說이 일단 긍정될 수 있다면 內需産業과 隔絶시키고 그 희생아래 特化, 育成되어온 우리의 輸出産業은 모두가 輸出品生産에 있어서의 附加價值가 마이너스值의 경향을 가진 것뿐이라는 推論이 가능해지므로 輸出振興政策 및 輸出産業育成政策을 위해서는 超克하기 힘든 理論的 障礙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¹⁹⁾ 主要 輸出品의 産業上 및 國民經濟的인 比重을 밝힐 필요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國民總生産의 규모가 1967년 현재 4,268百萬달러에 불과하고 생산 수준상승의 크기가 絶對額으로 보아 1962~1967년間に 있어 연평균 352百萬달러에 불과한⁽²⁰⁾ 우리나라에서 發明, 革新 및 새로운 企業을 國內에서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요를 토대로 갖는다는 것은 당분간은 어렵고, 따라서 外國의 持續的이며 漸增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생산력의 絶對水準을 갖추기가 그 역시 당분간은 어렵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무역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有形財產業의 크기는 1962년의 1,416百萬달러에서 1967년의 2,347百萬달러로 간신히 커졌을 뿐이므로⁽²¹⁾ 린더가 말하는 代表的 需要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만 絶對的 및 相對的인 生産力水準의 變化를 고찰하는데 그치지 않을 수 없다.

a. 合 板

合板業이 製造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의 표에서 보듯 1960년의 0.16%에서 1963년에는 1.56%로 크게 늘은 후 1966년에도 1.83%로 약간 증대되고 있다. 한편 그것이 製材業 및 木製品製造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의 3.49%에서 1963년의 46.10%를 거쳐 1966년에는 51.84%로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그 생산규모의 절대적 성장도 1960

(18) S.B. Linder, *An Essay on Trade and Transform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61, Ch. II.

(19) Jan Tinbergen은 開發途上國으로서의 輸出增進産業 (export-furthering industry)을 擴充시키는 것 보다는 輸入代替産業을 확충시키는 것이 훨씬 더 魅力的이라고 말하고 있다. cf. Jan Tinbergen, *International, national, regional and local industries in Trade, Growth and the Balance of Payments, Essays in Honor of Gottfried Haberler, Rand McNally, Chicago, 1965. p. 120.* 이것은 開發途上國이 原料輸出完製品輸入型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投下資本에 대한 所得創出效果가 輸入代替産業에서 더 크다는 이유에 근거한다. 그러나 Raul Prebisch가 일찌기 지적한 바와 같이 工業化가 상당한 정도 진행된 開發途上國에서는 經濟的 및 技術的 이유로 해서 加一層의 輸入代替産業中心의 工業化가 더욱 더 큰 관심을 쥐는다는 근거에서 Tinbergen의 주장은 支持될 수 없다. cf. United Nations,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1964, pp. 25-26.

(20) 1965年 不變價格.

(21) 農林水産業, 鑛業 및 採石業과 製造業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1962년에는 56.4%이었고, 1967년에는 55.0%이었으며, 1962년에 있어서의 國民總生産은 2,510百萬달러, 1967년의 國民總生産은 4,268百萬달러이었으므로 有形財產業의 生産額絶對值은 각기 1,416百萬달러와 2,347百萬달러가 된다.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計定』, 1967 및 韓國銀行, 『調査月報』, 第22卷 第8號.

<第8表>

合板業의 比重

	1960	1963	1966
國民總生產 (A) (억원)	2466.9	4879.6	10320.4
製造業 (B) (천원)	21,865,558	61,533,569	156,174,042
製材業 (C) (천원)	1,001,947	2,080,265	5,479,659
合板業 (D) (천원)	34,987	959,034	2,840,719
D/A (%)	0.014	0.19	0.27
D/B (%)	0.16	1.56	1.82
D/C (%)	3.49	46.10	51.84
實質成長率 (指數)	100	1835	3372

資料：韓國銀行, 『韓國의 國展所得計定』, 1967.

韓國產業銀行, 『韓國의 產業(上)』, 1967, p. 345.

韓國產業銀行, 『鑛工業센서스報告書』(基本統計篇), 1967.

년의 34,987 千원에서 1963 년에는 959,034 千원으로 27.4 倍, 1966 년에는 2,840,719 千원으로 81.2 倍나 커졌으며 그 사이의 物價上昇을 감안하더라도 18.4 倍를 거쳐 33.7 倍의 실질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合板業이 國民總生產에서 점하는 비중도 1960 년의 0.04%에서 1966 년의 0.27%로 커졌다. 한편 合板輸出이 合板生產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중은 1966 년에 있어 64.4%로 매우 높다.

b. 生 絲

合板業이 6·25 動亂 이후 갑자기 커진 産業인데 반하여⁽²²⁾ 生絲製造業은 1930 年代에 이미 생산 및 수출 등 모든 면에 현재의 수준을 2 倍 이상 상회하는 實績이 있었던 傳統있는 産業이며 따라서 國民經濟的 基盤이 굳건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후는 化學纖維에 의한 需要代替와 또 6·25 動亂으로 인한 施設破壞 및 桑樹濫伐등 國內外的인 불

<第9表>

生絲製造業의 比重

	1960	1963	1966
纖維製造業 (千원)	5,251,998	10,667,478	23,917,875
生絲製造業 (千원)	108,634	363,585	1377818
對國民總生產比	0.044	0.75	0.13
對製造業附加價值比	0.49	0.59	0.88
對纖維製造業附加價值比	2.07	3.41	5.79
實質成長率	100	224	527

資料：第8表와 同

(22) 1954 年 이전에는 合板生產企業으로는 東明木材商社 하나 뿐이었으며 1956 年까지는 單純한 內需 産業으로 존재하였었고 1957 年에 약간의 軍納이 시작되었으며 1959 年 이후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 cf. 韓國產業銀行, 『韓國의 產業(上)』, 1967, pp. 343-346.

리한 諸條件으로 인하여 크게 쇠퇴되었다가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國際需要의 증가 및 蠶業振興을 위한 法的 및 政策的 支援등 조건의 好轉으로 급격한 생산증대 및 수출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1960년에 있어 生絲製造業의 附加價値는 108,634千원으로 국민총생산의 0.044%에 불과하였고 製造業에서 차지하던 크기도 0.49%에 지나지 않았는데 1966년에는 1,377,818千원으로 늘어 국민총생산의 0.13%와 製造業附加價値總額의 0.88%로 커졌다. 物價變動을 감안한 實質成長의 크기도 5.3배에 달하였다. 한편 生糸輸出이 生産總額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의 57.2%에서 1967년에는 82.2%로 커지고 있다.⁽²³⁾

c. 綿織物

綿紡織工業은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주요산업이며 해방후 수출의 역사는 1957년부터 시작된다. 그 국민경제적인 비중은 매우 커서 1960년에 있어서는 국민총생산의 1.01%, 製造業附加價値總額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纖維製造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5%로 극히 컸다. 1966년에 있어서 그러나 그 비중은 하락하여 국민총생산의 0.71%, 제조업부가가치총액에 대해서는 4.72%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섬유공업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도 30.86%로 하락하고 있다. 實質的인 成長도 第19表에서 보듯 1960년에 비하여 1963년에는 39% 성장했다가 1966년에는 16포인트가 오히려 하락한 23% 成長을 기록하고 있다. 綿紡織生産物중 주요수출품인 綿布生産의 경우를 보면 綿紡織業전체에 비하여 다소 活氣를 더우고 있다. 물론 국민총생산이나 제조업 또는 섬유제조업에 대하여 차지

<第10表> 綿織物業의 比重

	1960	1962	1966
綿紡織業(A)(千원)	2,492,262	5,157,650	7,380,827
綿織物業(B)(千원)	1,385,882	2,395,071	4,164,428
A/國民總生産 (%)	1.01	1.06	0.71
B/國民總生産 (%)	0.56	0.49	0.40
A/製造業 (%)	11.39	8.38	4.72
B/製造業 (%)	6.34	3.89	2.66
A/纖維製造業 (%)	47.45	48.35	30.36
B/纖維製造業 (%)	26.39	22.45	174.1
A의 實質成長率	100	139	123
B의 "	100	116	125

資料：第8表와 同.

하는 비중은 遞減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率은 綿織物業製造業전체의 평균보다는 작으며 실질적인 성장도 1960년의 100에서 1961년의 116을 거쳐 1966년의 125로 완만하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3) 韓國銀行의 主要製造業製品生産量統計 및 輸出統計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

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²⁴⁾

綿布輸出이 그 총생산량에 대하여 접하는 비율은 1960년의 6.1%에서 1963년에는 12.2%로 커졌고 1965년에는 다시 32.7%로 커졌다. 절대량으로 보면 綿布生産量은 1960년의 205,122千m에서 1965년에는 227,978千m로 22,856千m밖에 늘지 않았는데 輸出量은 12,580千m에서 74,534千m로 61,954千m나 늘었다. 결국 이것은 綿布生産의 絶對的 水準이 國內市場을 飽滿시키기도 남을만큼 커서 1960年代에 있어서는 國內供給量은 오히려 39,098千m나 줄어들었고 따라서 綿布生産의 增大는 海外需要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²⁵⁾

d. 重 石

重石은 石炭, 金銀 등과 더불어 한국의 6大鑛物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鐵鋼工業이 지극히 미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한 국내수요를 차지 하지 못하고 그 거의 전부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증식에 대한 國際需要는 軍需産業과 관련을 갖고 특히 미국의 戰略物

<第 11 表> 重 石 의 比 重

	1960	1963	1966
國民總生産 (A) (억원)	2466.9	4879.6	10320.4
鑛 業 (B) (千원)	3,796,584	8354242	18719514
金屬鑛業 (C) (千원)	881,831	1165909	4674539
重石鑛業 (D) (千원)	467,679	101063	635734
D/A (%)	0.19	0.020	0.061
D/B (%)	12.32	1.21	3.39
D/C (%)	53.03	8.67	13.59
實質成長率 (指數)	100	14.5	56.5

資料：第 8 表와 同.

- (24) 生産額의 증대를 그간의 物價變動率로 디플레이트한 결과 얻은 값이므로 絶對量의 변화보다는 相對價格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한 成長率임. 生産統計에 의한 絶對量增加는 1960년을 100으로 할 때 1963년은 117이고 1966년은 138임. cf.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8年版, p. 225. 生産量이 1966년에 있어 1960년 對比 38% 증가하였는데 1960年 不變市場價格으로의 生産額이 25% 增加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綿織物生産業이 斜陽産業化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5) 綿織物輸出에 관한 제네버 協定이 체결되어 한국 綿布의 主要輸出對象國인 美國市場으로의 수출이 自主規制에 의해 억제된 이후 수출증가율은 第 5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체되고 이것이 또한 綿織物産業의 相對的 衰退에 한가지 원인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綿織物産業이 國際聯合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55~1961년 사이에 年平均 14%씩 성장하던 것이 1962년 이후로는 3%成長으로 정체되게 된 開發途上國 一般의 경우보다는 다소 유리한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다. cf. United Nations,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1964. p. 24.
- (26) 1951~1967년에 있어 72,666 M/T를 생산하여 그 96.5%에 해당하는 70,353 M/T를 수출하고 있다. cf. 韓國産業銀行, 『韓國의 産業(上)』, 1967, p. 90 및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8年版, pp. 220 및 338.

資備蓄政策에 영향받는 바가 크므로 그 時勢와 需要는 國際情勢의 緊迫性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예컨대 한국동란때에는 韓美重石協定에 의하여 그 價格은 톤당 65 달러의 高價에 달하였다가 1954年 3월 同協定이 종료되면서부터는 붕괴되기 시작하여 1957년에는 7.5 달러로 30년래 最下價格을 기록하였다.⁽²⁷⁾ 그 후 越南戰爭에의 美國軍事介入이 대규모화하면서부터 조성된 국제긴장에 자극되어 重石의 국제수요는 다시 활발해지고 그 가격도 등귀되어 1965년말에는 30 달러선에 도달하였고 그에 따라 생산과 수출도 활기를 띠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外部的 要因에 의하여 압도적으로 영향받는 重石鑛業은 1962년 이후 加速化되어가는 生産增大에는 따라갈 수 없어 重石景氣가 활발치 못하였던 1963년에는 국민총생산에 접하는 비중은 0.02%로 1960년의 0.19%에 비하여 크게 줄었고 重石景氣가 高調된 1966년에도 0.061%로 196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鑛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0년에 비하여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는데 越南平和의 展望好轉은 또다시 重石鑛業의 지위를 1962年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 예상된다.⁽²⁸⁾ 生産과 輸出의 관계를 보면 1962~1967년간 29,074 M/T를 생산하고 그중 93.4%에 해당 하는 27,139 M/T를 수출하고 있다.

3. 輸出單價 및 數量의 變化

1962년 이후 1967년까지의 6년간에 2년이상에 걸쳐 10大輸出品目으로 등장한 것은 合板(6회), 編物製品(3회), 假髮(2회), 生糸(6회), 男子用內衣(3회), 綿織物(6회), 鮮魚(6회), 重石(6회), 김(2회), 鐵鑛(4회), 鋼板(3회), 無煙炭(2회)등 12個品目이다. 여기에 1967년에 새로이 등장한 人造纖維織物과 신발류를 합한 14個品目に 대하여 1962년 이후 1967년까지의 輸出單價의 변화 및 수출수량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면 다음과 같다.

國聯貿易統計年鑑의 基準을 따라 1963년을 기준연도로 잡았을 때 1962~1966년중 單價指數가 基準年度 이하로 하락한 일이 없는, 따라서 輸出價格條件이 계속 良好하거나 好轉되고 있는 品目は 14個品目中 第1次產品으로는 重石 하나뿐이고 第2次產品에는 人造纖維織物과 男子用內衣의 두 品目, 따라서 모두 합하여 겨우 3個品目に 불과하다. 이것은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이 國際市場에서 심한 가격변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27) 韓國産業銀行, 『韓國의 産業(上)』, 1967, p. 85.

(28) 重石生産量은 1960년의 4,915 M/T에서 1963년에는 5,222 M/T로 6.2%, 1966년에는 4,082 M/T로 -17%의 增加를 기록하고 있다.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8年版, p. 220.

<第 12 表>

第 1 次 產品輸出單價指數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重 石	118.7	100.0	141.3	264.2	421.2	458.9
김	120.3	100.0	149.3	61.0	130.4	113.0
無 煙 炭	92.6	100.0	97.5	94.4	94.1	103.6
鮮 魚	157.1	100.0	85.5	131.3	102.6	39.4
生 絲	68.4	100.0	74.9	85.2	98.9	99.4
鐵 鑛	99.9	100.0	96.4	89.9	89.6	85.6

資料：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 各年號에서 作成.

<第 13 表>

第 2 次 產品輸出單價指數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人造纖維織物	101.9	100.0	275.3	352.7	377.9	313.3
男子用內衣	108.7	100.0	108.4	117.0	178.7	202.0
假 髮	—	100.0	78.0	159.1	170.1	132.7
綿 織 物	98.6	100.0	49.8	21.4	123.5	121.7
신 발 類	154.2	100.0	125.6	90.6	110.0	115.4
編 物 製 品	85.0	100.0	73.3	78.1	127.9	112.4
鋼 板	102.7	100.0	92.7	136.6	143.1	96.5
合 板	101.3	100.0	96.9	89.3	95.5	95.5

資料：第 12 表와 同.

다. 특히 重石의 경우는 基準年度인 1963 年이 越南戰爭이 격화되기 이전, 그 國際時勢가 가장 폭락했던 해이므로, 그리고 北爆中止 이후 즉각 그 價格趨勢가 鈍化, 反落되고 있는 터이므로 꾸준한 수요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2 個品目 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수출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不安定한가는 14 個代表品目を 1963 年 이외의 어떤 年度를 기준하여 고찰하더라도 6 年동안 계속해서 基準年度價格水準以下로 하락되는 일이 없는 品目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음 第 1 次產品은 1967 年현재 基準年度보다 가격이 하락된 것이 鮮魚, 生絲, 鐵鑛 등 3 個이고, 다소의 上昇을 보이고 있는 것이 重石, 김, 無煙炭 등 그 역시 3 個品目인데 1967 年에 있어 單純算術平均에 의한 綜合單價指數는 149.8 이고 輸出額에 의한 加重平均單價指數는 140.2 로 전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韓國銀行에서 추계하고 있는 輸出單價指數와 비교하여 보면 다소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第 2 次產品의 輸出單價指數를 品目別로 볼때 鋼板 및 合板의 두 品目を 제외하면 나머지 6 個品目전부가 기준연도에 비하여 현저한 改善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人造纖維織物의 輸出價格은 綿織物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되고 있다. 그런데 1964 年 이후 계속

해서 가장 중요한 輸出品目으로 君臨하고 있는 合板의 單價指數가 1962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여 1967년 현재 95.5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왜냐하면 合板製造業의 附加價值率은 1966년에 있어 22.7%로서 제조업 전체 평균인 37.4%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外貨純受取率은 위태로울 정도로 낮는데⁽²⁹⁾ 그 單價指數가 계속 하락한다는 것은 「린더」의 지적을 기다릴 것도 없이 合板輸出生產의 附加價值가 負로 逆轉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염려를 더 한층 격화시켜 주는 사실로서는 合板製造業의 附加價值率이 1963년의 34.7%에서 1966년의 22.7%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⁰⁾ 1963년에 있어서도 그것은 제조업 전체의 평균 36.9%보다 2.4% 포인트 낮았는데 그것이 1966년에 와서는 14.7% 포인트로 그 格差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人造纖維織物을 비롯한 8個 品目の 輸出單價指數의 變化를 보면 單純算術平均에 의하면 1967년 현재 142.2로 42.4% 개선되고 있으며 輸出額을 근거한 加重平均에 의하면 136.7로서 36.7% 개선되고 있다. 그리하여 第1次產品과 第2次產品 전부를 합한 14個 品目の 輸出單價指數는 加重平均에 의할 때 137.7이며 單純算術平均에 의할 때 146.2로서 우리나라 輸出商品全體의 輸出單價指數보다 높다.⁽³¹⁾ 이처럼 전체평균에 비하며 10個 主要 輸出商品의 輸出單價指數가 유리한 變化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그들이 相對的으로 더 큰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리한 輸出環境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첫째로 第5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品目別 輸出額順位가 매우 變動的이라는 사실, 그리고 第12表 및 第13表에서 보듯 重石, 人造纖維織物 및 男子用內衣를 제외한 11個 品目の 輸出單價指數의 變動이 심하며 基準年度 水準이하로 흔히 하락하는 수가 많다는 것 등은 輸出市場이 安定的이 아니라는 증명이 될 수 있다. 1962~1967년의 6년 사이에 基準年度인 1963년 水準 이하로 單價指數가 하락한 것은 김이 1회, 無煙炭이 4회, 鮮魚가 2회, 生絲가 5회, 鐵鑛이 5회로 평균 3.4회이고 第2次產品의 경우 假髮이 1회, 綿織物이 3회, 신발類가 1회, 編物製品이 3회, 鋼板이 2회, 合板이 4회로 평균 2.3회이다. 이러한 고찰에 의할 때도 第1次產品의 輸出價格은 더욱 變動的이고 따라서 그 수출환경은 第2次產品의 그것에 비하여 不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輸出數量指數의 變化를 보면 第14表 및 第15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量的

(29) 韓國産業銀行, 『鑛工業件서스報告書』, 1966年版, 基本統計篇, pp. 184, 186.

(30) 同 1963年版, 基本統計篇, pp. 160-163.

(31) 한국은행이 추계한 輸出單價總指數는 1967년 현재 121.3에 불과하다.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68年版, p. 326.

증대를 현저히 하고 있다. 위선 第1次產品의 경우 鮮魚, 김, 鐵鑛 등 3 個品目は 1962 年 이래 꾸준히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生絲의 경우도 基準年度이하로 수출량이 하락되지 않고 있다. 다만 重石과 無煙炭만이 그 數量증대가 시원하지 않은데 重石은 輸出單價指數가 크게 好轉되어 전체로서의 輸出所得은 第5表에서 보듯이 증가되고 있으나 無煙炭은

<第14表> 第1次 產品輸出數量指數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鮮 魚	57.0	100.0	150.1	143.9	232.8	981.3
김	41.3	100.0	245.1	360.9	443.9	382.1
生 絲	124.0	100.0	167.1	170.9	252.1	320.5
鐵 鑛	65.1	100.0	105.0	126.9	114.8	119.6
重 石	92.2	100.0	106.9	80.3	73.6	78.1
無 煙 炭	114.6	100.0	95.6	77.9	61.7	65.4

資料：第12表와 同.

<第15表> 第2次 產品輸出數量指數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假 髮	—	100.0	166.7	1,133.3	5,433.3	13,166.6
編 物 製 品	8.8	100.0	385.2	3,564.7	6,244.1	11,102.9
신 발 류	20.9	100.0	94.7	620.1	672.8	953.9
男子用內衣	21.8	100.0	134.6	894.6	586.8	999.0
人造纖維織物	0.4	100.0	80.2	150.8	247.2	667.7
合 板	34.8	100.0	210.8	345.9	535.3	652.2
綿 織 物	43.3	100.0	519.5	1,141.9	191.0	241.1
鋼 板	5.6	100.0	27.4	89.9	60.6	12.1

資料：第12表와 同.

單價指數 역시 停滯되고 있어 輸出所得은 輸出量減少로 인하여 1962 年の 2,740 千달러에서 1967 년에는 1,750 千달러로 줄어들고 있다. 가장 큰 量의 擴大를 보인 것은 鮮魚로서 1967 년에는 981.3으로 커졌으나 輸出單價의 하락으로 輸出所得은 4 倍弱 增加에 불과하다. 第1次產品輸出數量指數의 單純算術平均은 324.5 이고 加重平均은 403.3 으로 單價指數에 비하여 훨씬 큰 伸張率을 보이고 있다.

다음 第2次產品의 경우 鋼板을 제외한 모든 品目이 1967 年 현재 基準年度보다 큰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1964 년에 있어 신발류 및 人造纖維織物의 수출량이 基準年度에 비하여 다소 감소된 것을 제외하면 7 個品目전부가 모든 年度에 있어 基準年度보다 큰 輸出量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基準年度에 비하여 136 倍나 증가한 假髮輸出이나 111 倍나 증가한 編物製品輸出의 경우 1962 年 또는 1963 년에 있어서의 輸出은 數量 및 金額

의 모든 면에서 무시할 수 있을만큼 작았던 것이므로 그 指數的 表示는 오히려 誇張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假髮의 경우 1962년의 수출량은 3M/T, 輸出額은 13千달러에 불과하였고 編物製品의 경우는 그 역시 輸出量은 3M/T, 輸出額은 15千달러에 불과하였다. 또 67倍가량의 수출량 증가를 보인 人造纖維織物의 경우도 1962년의 수출량은 2M/T이고, 수출액은 2千달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數值가 큰 假髮 및 編物製品과 數值가 작은 鋼板을 제외한 第2次產品輸出數量指數의 綜合單純算術平均은 703.0이고 加重平均指數는 654.5이다. 한편 8個品目を 그대로 평균하면 單純算術平均指數는 2849.4이고 加重平均은 4810.2로 커진다. 이것은 第2次產品의 輸出量의 급격한 증가를 뚜렷이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도 극단적이므로 취할 수 없고, 輸出數量變化는 極端的인 3個品目を 제외한 加重平均指數인 654.5를 취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한국은행이 수출상품 全品目に 관하여 산출한 輸出數量指數보다 크다. 그리고 兩極端을 제거한 것으로 8個의 第2次產品의 輸出數量指數를 대표시킬 때 우리의 고찰대상인 14品目の 輸出數量指數는 單純算術平均으로는 513.8이고 加重平均으로는 581.6이 된다. 한국은행 추계에 의한 輸出數量指數의 總指數는 304.0이므로 14個主要輸出商品의 輸出量增加는 全商品平均을 대략 70~90% 上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輸出品目變動의 理論的 考察

一國의 輸出構造가 生産費比率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比較生産費說의 입장에 설 때 輸出構造는 시간에 걸친 변화를 겪게 마련이다. 위선 人口가 자연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하며 資本蓄積 역시 緩急의 차는 있지만 시간과 더불어 진행되는 데 人口增加率과 資本蓄積率 더욱 具體的으로는 投資率은 그 크기가 같을 수 없으므로 一國의 要素賦存率은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生産費構造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要素賦存率의 변화는 生産函數=技術水準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生産費構造의 변화는 더욱 격화되고 그것은 결국 國際間的 生産費比率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開發途上國에서는 더욱 현저하다. 즉 開發途上國에서는 그 경제발전의 속도를 加速化시키는 과정에서 항시 새로운 技術을 도입하므로 비록 要素賦存率의 변화가 內生的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要素結合比는 技術변화에 의하여 항시 추곡되지 않을 수 없고 또 대다수의 開發途上國은 축적된 資本이 적으므로 借款 또는 直接投資의 형태로 항상 外部的 源泉으로부터 대량의 資本을 공급받는다. 이것 역시 要素賦存率의 변화를 통하

여 한편으로는 生産函數의 변화를 유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輸出構造와 한걸음 더 나아가서 輸入構造까지도 변화시킨다.

또 경제성장에 따르는 所得增大와 기술발전에 따르는 嗜好의 변화는 所得支出類型의 변화를 일으켜 輸出 및 輸入을 需要面에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一國의 資源配分 및 生産構造까지 다르게 한다. 물론 計劃의 開發을 試圖하는 開發途上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需要측의 要因은 강력한 政策規制의 對象이 되므로 所得增加는 실질적으로는 消費需要의 증대가 아니라 貯蓄의 증대로 歸結되며 貯蓄의 實物的 對應物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없는 開發途上國에서는 그것이 독자적으로 資源配分을 달리하게끔 한다는 作用은 클 수 없으므로 生産構造는 支出이 규제되지 않았을 때 가능할만큼 多樣化될 수 없고 그 결과 輸出構造의 변화도 國內消費需要에 誘發되는 것보다는 投資計劃에 의하여 유발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需要변화에 유발된 生産構造의 변화 및 生産費比率의 변화가 開發計劃이 잘 짜여지고 잘 집행되는 開發途上國일수록 작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나 生産構造 및 貿易構造가 정도의 차는 있을망정 消費者需要變化에 의하여 그 변화가 유발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微視的으로 個別産業을 중심하여 고찰할 때 문제는 또다른 樣相을 가진다. 첫째 鑛山物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原始産業生産物이 工業用 原資材이고 또 특히 그것이 鐵鑛 또는 重石鑛과 같이 重化學工業의 原資材가 되는 第1次產品일 때 그 生産 및 輸出構造는 國內需要와는 완전히 격절되고 만다. 따라서 金銀鑛, 石炭鑛등을 제외하고서는 그 生産은 需要變化보다는 工業化의 進展과 그에 따른 工業構造의 변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며 그러한 先行條件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生産과 輸出은 海外需要에 오로지 의존한다. 이것은 엄격히 구별할 때 所得增大로 인한 國民所得支出, 그 絶對的 增減이나 貯蓄 및 消費로의 構成變化와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經濟構造의 變化에 완전히 좌우되는 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질랜드나 오스트렐리아의 경우와 같이 農業的 先進國으로 성장하는 경우 아무리 國民所得이 증대되고 그 支出이 多樣化하더라도 重石等 重化學工業用 第1次產品의 國內需要는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재와 같은 工業構造를 가지고 高所得을 실현할 수 있어 需要가 커지더라도 그 때 역시 重石등에 대한 國內需要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第2次產品의 경우를 생각하면 開發途上國의 工業은 당초부터 輸入代替産業으로서 육성된 輸入競爭的 性格을 가진 산업이지 輸出産業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

하게 추리한다면 경제발전과 더불어 輸入競爭産業으로부터 輸出産業으로의 轉換이 생각될 수 있고 그러한 轉換에 결정적인 계기를 주는 것으로는 國內에서의 需要가 충분히 커져 그 産業으로 하여금 國際競爭에 견디어날 수 있는 강력한 生存力을 갖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칠 때 우리는 거기에 두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본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相異한 類型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한 産業의 生産의 最適規模와 國內需要와의 相互關係이다. 開發途上國은 흔히 人口 및 1人當所得이 작으므로 市場의 규모는 작다. 그러나 工業 plant는 모두가 넓은 市場을 가진 先進國의 技術發明의 生産物이고 또 經濟活動에 있어서는 언제나 規模에 의한 經濟가 생산량의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작용한다는 두가지 사실로 인하여 先進工業國의 生産施設을 그대로 移植한 開發途上國의 輸入代替産業의 生産能力과 國內市場에 등장하는 需要의 크기 사이에는 반드시 等量關係가 성립되지 않는다.

生産의 最適規模 \leq 國內需要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需要增大는 단기간에 있어서는 輸入競爭産業을 輸出産業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 그것은 또 다른 施設投資를 일으켜 生産力의 絶對的 水準을 높이는 하지만 언제나 그것으로 그치고 말지 量的 增大가 輸出産業으로의 質的 變化를 실현하지 못한다.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은 첫째 國內需要의 增加率 $<$ 該産業能力의 增加率이며 이 조건은 ① 消費者嗜好와 관련된 該産業의 性格(消費財産業의 경우), ② 開發計劃 또는 그러한 것이 없는 開發途上國의 경우는 投資家의 主觀的인 性向과 관련된 該産業의 性格(投資財産業 및 中間財産業의 경우)에 의하여 一義的으로 결정된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生産의 最適規模 $>$ 國內需要라는 조건 및 「린더」가 말하는 絶對的 生産力水準의 輸出可能線으로의 上昇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며 이때 만일 그 産業이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다면 輸入競爭産業으로부터 輸出産業으로의 質的 變化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찰하면 生産의 最適規模 $>$ 國內需要라는 관계가 開發途上國에서는 생기기 일수이다. 이것은 重化學工業이나 合成纖維, 플라스틱, 合成劑 등 소위 新原料를 사용하는 새로운 輕工業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施設能力은 國內需要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輸出産業으로의 轉換可能性은 比較優位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된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는 또 다시 두 가지 要因의 제약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real vicious circle of international trade의 존재이다. 즉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은 소위 東西貿易이라는 適切한 地理學的 用語를 가진 先進國貿易에서 隔絶된 奧地인 南에

偏在하고 있고 그 交易量도 微微하므로⁽³²⁾ 船舶等 國際經濟의 社會間接資本이 주는 外部經濟的 效果를 누릴 수 없다. 이 때문에 勞動生産性比率로 近代化된 比較生産費說의 설명대로는 개발도상국의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는 開發途上國의 企業家에서 볼 수 있는 世界로 진출하려는 意欲, Prebisch의 말을 빌린다면 export-mindedness⁽³³⁾의 缺如이다. 西歐의 經濟發展에 있어 冒險의 商人(merchant adventurers)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돌이켜 생각한다면 一産業을 輸入競爭産業에서 輸出産業으로 轉換시키는데 있어서의 企業人의 export-mindedness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vicious circle of international trade는 작용한다. 國際交易의 主流에서의 人的 交流가 隔絶됨으로써 오는 世界進出에의 장애는 매우 크다. 그것은 輸出入貿易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1년의 24.8%에서 1967년의 40.1%로 커졌고 또 우리의 輸出入貿易이 1967년 현재 대부분 日本 및 English speaking nation인 美國, 英國, Hong Kong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言語의 障壁의 작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具體的인 輸出品目과 결부시켜 생각할 때 이상과 같은 理論的 要求가 충족되는 수도 매우 드물다. 첫째 쌀은 1962년에 59,707 M/T, 8,925千달리가 수출되었지만 그해의 全體食糧需要量은 33,232千石, 국내총공급은 31,075千石으로서 2,157千石(대략 30萬 M/T)이 부족하였다.⁽³⁴⁾ 이것은 결국 絶對的 生産力水準의 上昇이 수출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 外換需要가 飢餓輸出을 강요케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³⁵⁾ 無煙炭수출의 경우도 1962~1967년중 2회에 그치고 말았지만 거의 해마다 煉炭波動등으로 대표되는 無煙炭國內供給의 부족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쌀과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乾魚, 寒天, 김, 乾오징어, 貝類, 鮮魚등 水産物에 대해서는 國內需要와 관련시켜 볼 때 「린더」理論의 適用可能性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 역시 Kravis 流의 入手可能性理論으로는 무리가 있다. 重石 및 生豚은 國內的 要因보다는 國際需要 및 그 價格變化에 전적으로 영향받은 것이나 理論적으로는 前者는 入手可能性理論, 後者は 需要水準의 上昇理論에 적합하다는 차이

(32) 1966년 현재 203,800百萬달러에 달한 世界輸出總額중 69.5%에 해당하는 141,700百萬달러를 先進國이 차지하고 나머지중 19.1%인 3,900百萬달러가 開發途上國의 수출이었다. United Nations,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968.

(33) United Nations, Toward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1964.

(34) 『農業年鑑』, 1962年版, p. 1-35.

(35) 그해의 食糧供給의 均衡은 3,624千石에 달한 外國產雜穀導入으로 인하여 米麥代替라는 소비자 희생위에서 이루어졌다. 農協中央會, 『前掲書』, p. 1-35.

가 있다. 鐵鑛은 重石과 같은 성격의 것이나 그 정도는 훨씬 輕微하다.

生絲, 合板, 綿織物, 編物製品, 人造纖維製品, 男子用內衣 및 外衣, 신발류 등은 絶對的 生産力水準도 [II의 2]에서 본 바와 같이 크고 Kravis가 요구하는 供給의 彈力性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品目은 比較優位의 大小에 따라 輸出規模는 一義的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한편 1963, 65, 66년의 3個年에 걸쳐 10個主要輸出商品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鋼板은 Linder理論이나 Kravis理論 어느 것으로도 설명하기 힘들다. 絶對的 生産力을 충분히 높일만큼 큰 國內需要도 없었거니와 供給의 彈力性 역시 크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은 越南戰爭으로 인한 特別需要景氣에 편승하여 外生的 要因에 의해 나타난 異端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III. 主要輸出商品の 比較優位

1. 主要輸出商品の relative share

一國의 比較優位를 측정할 수 있는 分析手段으로서 relative share와 輸出入比率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relative share指數편이 輸出入比率指數보다 더욱 명쾌할 뿐더러 操作的 意義가 크므로 이를 기초로 하고 輸出入比較指數는 그 補完的인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³⁶⁾ 그러나 relative share index에 의한 比較優位分析은 開發途上國의 경우에는 흔히 그릇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쉽다. 왜냐하면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흔히 絶對的 生産力의 一般의 水準이 持續的인 수출을 가능하게 할만큼 커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外部條件의 변화에 의하여 輸出을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유리한 조건이 消失되면 수출은 격감하므로 relative share index는 해마다 급격한 變動을 하여 아무런 意義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輸出入比率指數가 더 유용한 分析手段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1964~1966년에 있어서의 鋼板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越南戰爭으로 인한 特需로 鋼板輸出은 1964년의 2,115千달라로부터 1965년에는 10,195千달라로 늘어 그 relative share index는 138.4에서 477.9로 커졌는데 그후 B.A. 政策의 強化로 對越輸出이 不振해지자 1966년에는 7,126千달라로 줄어들고 relative share index는 264.9로 폭락하였다. 1967년에 있어서의 鋼板輸出은 다시 크게 줄

(36) 예컨대 小島 清. 그는 relative share 대신 intensity of trade 라는 概念을 사용하여 왔는데 本質的으로는 다를 바 없다.

이 972千달러에 불과하였고 1968년 1월~6월에는 572千달러에 불과하므로 1966년 현재 264.9라는 높은 relative share index를 가진 것만으로 比較優位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대신 輸出入比率로 分析해보면 1967년에 있어서의 鋼板輸入은 27,206千달러이므로 輸出入比率指數는 3.5에 불과하고 그것은 1965년에 있어서도 76.3에 지나지 않으므로 輸出入比率指數를 기준할 때 鋼板은 한번도 比較優位를 가져본 적이 없고 따라서 과거의 鋼板輸出은 전통적인 用語를 쓴다면 飢餓輸出이었고 Linder의 표현을 빌린다면 鋼鐵生産의 附加價値는 마이너스 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理論的 缺陷을 염두에 두고 주요 輸出商品의 relative share를 보면 다음과 같다.⁽³⁷⁾

a. 合 板

최근 가장 중요한 輸出品目으로 등장하고 있는 合板은 relative share index도 압도적으로 클뿐만 아니라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64년에 20,804.3이던 것이 1965년에는 25,097.5로 커졌고 1966년에는 다시 28,429.0으로 커졌다. 따라서 relative share index만 기준삼을 때 合板産業은 壓倒的인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合板의 relative share index를 다른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日本은 1964년에 2228.3이던 것이 1965년에는 1878.3으로 줄어든 후 1966년에는 다시 1785.7로 遞減되고 있다.⁽³⁸⁾ 그러므로 合板은 國內他輸出商品에 비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인 日本에 비하여서도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으며 그 比較優位는 II의 3에서 본 바와 같은 交易條件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b. 人造纖維織物

合板다음으로 큰 relative share를 가지고 있는 것이 人造纖維織物이다. 人造纖維織物은 II의 3의 分析에서 보았듯 그 輸出單價指數 및 輸出數量指數도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유망한 輸出品인데(第 14表 및 第 15表 參照) relative share index는 合板의 경우만큼 크지도 않고 安定되어 있지도 않다. 1964년에 있어서의 그것은 852.9로서 第 16表에서 보듯 第 4位에 머물던 것이 1965년에는 第 2位로 진출한 후 1965년에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指數의 절대적인 크기는 1965년의 1153.2에서 1054.2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37) 資料의 不備로 II에서의 分析對象이 된 23個 品目中 다만 6個品目에 대해서만 分析이 가능하였다.

(38) 日本貿易振興會, 『海外市場白書』, 1968年版에서 作成

〈第 16 表〉 主要輸出商品の relative share 指數

	1964	1965	1966
合 板	20,804.3	25,097.5	28,429.0
人造纖維織物	852.9	1153.2	1054.2
綿 織 物	1,174.8	831.2	958.1
鮮 魚	961.2	1011.7	876.8
編 織 製 品	35.9	231.8	440.6
鋼 板	138.4	477.9	264.9

資料 : United Nations,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1966 에서 作成.

그러나 人造纖維織物이 국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國際的으로도 큰 relative share index 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1960~1962 년에 있어 日本의 그것은 479.0 으로 陶磁器의 507.2 에 이어 第 2 位이나 指數의 크기는 우리보다 훨씬 작고 美國은 54.9 로서 第 50 位, EEC 에서는 99.6 으로 第 49 位, 영국에서는 30.2 로서 第 70 位, 캐나다에서는 12.1 로 第 57 位, 그리고 「쉬든」에서는 25.7 로 第 52 位이다.⁽³⁹⁾ 따라서 인조섬유직물의 경우 일본만이 비교우위를 가지나 그 크기는 우리보다 못하고 그 밖의 歐美先進工業國에서는 比較優位가 없는 輸入産業生産物이나 그 輸入競爭力은 매우 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c. 綿 織 物

綿織物の relative share index 도 不規則的으로 遞減하고 있으나 여전히 큰 値를 나타내고 있으며 II 의 3 에서의 分析에서 보았듯이 輸出單價指數 및 輸出數量指數가 모두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有望한 輸出商品의 하나로 지목된다. 綿織物の relative share index 의 절대적인 변동은 1964 년의 1,174.8 에서 1965 년의 831.2 로 폭락한 다음 1966 년에는 다소 회복되어 958.1 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相對的 位置도 1964 년의 第 2 位에서 1965 년에는 第 4 位로 떨어졌다가 1966 년에는 第 3 位로 회복되고 있다.

한편 이를 日本 및 西歐工業諸國과 비교해보면 1960~1962 년에 있어 日本의 그것은 460.6 으로 綿絲에 이어 第 4 位이고 美國은 59.7 로서 第 44 位, EEC 는 86.1 로 第 59 位, 영국은 68.8 로서 第 58 位, 「캐나다」는 34.9 로서 第 70 位 그리고 「쉬든」은 23.9 로 第 54 位이다.⁽⁴⁰⁾ 綿織物の 경우도 人造纖維織物の 경우와 마찬가지로 日本만이 輸出商品으로서의 比較優位를 가지나 우리만 못하고 그 밖의 모든 工業國에서는 輸入競爭商品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39) 小島清, 島野卓爾, 渡部福太郎 著『經濟成長と貿易構造』, 1968, pp. 80-81.

(40) 小島清 등, 『前掲書』, pp. 80-81.

d. 鮮 魚

鮮魚는 輸出數量면에서는 第14表에서 나타나듯 꾸준하면서도 급속한 증대를 나타내고 있으나 輸出單價면에서는 거의 해마다의 騰落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鮮魚輸出의 relative share index도 해마다 변화하고 있다. 즉 1964년의 961.2에서 1965년에는 1,011.7로 커졌다가 1966년에는 다시 876.8로 하락했고 그 相對的인 지위는 1964년 및 1965년의 第3位에서 1966년에는 第4位로 떨어지고 있다.

e. 編物製品

최근 급격한 수출증대를 기록하고 있는 編物製品의 relative share index는 그 역시 급격히 커지고 있다. 그리하여 1964~1965년의 最下位에서 1966년에는 第5位로 진출하였고 그 絕對值로 1964년에는 35.9로 오히려 輸出産業으로서의 比較優位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 그 다음해에는 231.8로 급속히 개선되어 輸出産業으로서 脚光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鋼板이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비록 relative share index를 기준한다면 輸出商品일 수 있으나 輸出入比率指數를 判斷基準으로 하여 보나 또는 그 産業의 現實을 總括적으로 분석해보나 이를 輸出商品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에 비추어 編物製品도 비록 유망한 輸出商品이기는 하지만 他商品에 비하여 比較優位는 작다고 아니할 수 없다.

f. 鋼 板

鋼板은 relative share index에 의한 比較優位分析의 限界性を 實證하는 것으로서 흥미있다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구체적인 數字에 의해 이를 實證적으로 고찰할 경우 한국에서의 鋼板輸出이 relative share index는 1964년의 138.4에서 1965년의 477.9로 커진 후 1966년에는 다시 264.9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相對적으로 큰 輸出 share를 갖고 있다. 한편 鋼板輸出의 relative share index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1960~1962년에 있어 日本은 150.1로서 第19位이고 美國은 59.1로서 第46位이며 EEC는 124.2로 第25位, 영국이 82.8로서 第48位, 캐나다가 67.6으로 第20位이며 「쉬든」이 69.3으로 第26位를 차지하고 있다.⁽⁴¹⁾ relative share index만을 기준할 때 한국은 日本, 西獨 및 Benelux, 「쉬든」같은 鐵鋼工業國家보다도 압도적으로 큰 比較優位를 鋼板의 경우 가지고 있다는 結論이 나온다. 결국 이러한 언센스는 經濟分析이 한가지 分析手段에만 의존할 때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限定된 資料를 가지고 relative share를 밝힐 수 있었던 6個品

(41) 小島清等, 『前掲書』, pp. 80-81.

目중 鋼板을 포함한 모든 品目이 커다란 比較優位를 relative share index 라는 基準에 의할 때 가지고 있으며 특히 合板, 鮮魚, 綿織物 등 1962~1966 년중 계속하여 10 大輸出商品으로 등장한 品目の 경우 그것이 매우 크다는 것, 1964 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계속하여 10 大輸出商品群에 참가하고 있는 編物製品의 경우는 비록 그 relative share index 는 크지 않지만 그 改善의 槓桿가 급격하다는 것, 그리고 1966 년에 처음으로 10 大輸出商品群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人造纖維織物의 경우는 매우 큰 relative share index 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등을 특징적인 사실로서 들 수 있다. 그리고 relative share 라는 分析手段이 展望的인 分析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면 이들 5 個品目の 輸出展望을 밝히고까지 말할 수 있다.

2. 輸出入比率指數에 의한 分析

relative share index 와 補充的으로 援用되는 輸出入比率指數도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그 適用에 있어 原理的인 制約을 받는다. 왜냐하면 開發途上國은 대부분의 경우 國際收支 逆調에 시달려 자유로운 輸入을 규제하고 또 國際收支가 順調로운 경우에 있어서도 外換의 擇一的인 사용을 통해 輸入은 品目에 따라 差別的인 規제를 받으며 또 外換使用의 擇一的인 用途간의 경쟁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國內産業의 保護를 위해서 자유로운 수입이 제한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IMF 8 條國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輸出入比率指數에 의한 比較優位의 분석은 중대한 制약을 받으며 따라서 이 分析道具의 有用性은 貿易自由化率의 크기에 比例的인 關係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制約은 존재하며 그 制約度는 다른 開發途上國보다 오히려 크면 컸지 작지가 않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 밖의 開發途上國에 비하여 工業化의 범위가 크며 따라서 保護對象이 될 輸入競爭産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지만 工業化의 度는 아직도 낮아 開放된 市場에서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못가지고 있으므로 保護主義의 輸入規制가 심하였고 또 최근에 와서 工業의 質的 向上 및 量的 增大가 현저하다고는 하지만 開發投資를 위해 현저히 증가된 外換需要로 인하여 競爭輸入品 및 不要不急品에 대한 輸入規制는 여전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62~1966 년에 10 個主要輸出商品으로 등장하였던 總 23 個의 輸出品중 輸出入比率指數가 算出될 수 있었던 것은 第 17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綿織物, 人造纖維織物, 針 拔類 및 鋼板의 4 個에 불과하였다. 물론 SITC item 에 의하지 않고 범위를 약간 확대하여

<第17表> 主要輸出商品輸出入比率指數

	1962			1963			1964		
	輸 出	輸 入	比	輸 出	輸 入	比	輸 出	輸 入	比
綿 織 物	1,834	291,700.0		4,289	1,740	246.5	11,119	1,577	703.8
人 造 纖 維 織 物	2	172	1.1	471	3,295	14.3	1,040	663	156.9
신 발 類	238	18	1322.2	738	93	793.6	879	8	10,987.5
銅 板	480	8,521	5.6	8,290	12,215	67.9	2,115	4,521	46.8
	1965			1966			1967		
綿 織 物	10,522	2,404	437.7	10,121	2336	433.2	12,591	2,876	437.7
人 造 纖 維 織 物	2,507	1,585	164.4	4,402	4398	100.1	9,853	4,650	211.9
신 발 類	4,151	28	14,825.0	5,467	53	10,315.1	8,139	13	62,607.7
銅 板	10,195	13,355	76.3	7,126	15,689	45.4	972	27,206	3.6

資料：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號서 作成.

subgroup 을 기준하여 밝힌다면 모든 品目에 대하여 輸出入比率指數를 계산할 수 있고 또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合板의 경우와 같이 1968.1~7 월현재의 輸出入額을 土臺로 113,682.1⁽⁴²⁾이라는 등의 輸出入比率指數를 대다수의 輸出商品에 관하여 산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같은 指數는 단지 比較優位가 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또는 근거가 될 수 있어도 基數的으로 比較優位의 크기가 얼마라든가 또는 序數的으로 다른 商品에 비하여 더 큰 또는 더 작은 比較優位를 가졌다는 計數的 比較를 위한 근거나 그 증명이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有意的인 指數의 算出이 가능했던 綿織物등 4 個品目에만 分析을 限定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결과는 第17表에 표시되어 있다. 綿織物은 1962~1964년에는 다소의 起伏을 보이고 있으나 1965~1967년에는 상당히 安定되어 있으며 1968년과 1967년은 437.7로 꼭 같은 指數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綿織物工業이 産業으로서, 또 輸出産業으로서 安定된 基盤을 국내에 가지고 있으며 확고한 比較優位를 土臺로 安定된 海外市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日本의 綿織物輸出入比率指數와 비교해보면 우리 綿織物 輸出의 比較優位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며 따라서 加一層의 比較優位開發과 指數의 改善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日本의 綿織物은 1960~1962년 현재 relative share index는 460.6으로 우리보다 작지만 그 輸出入比率指數는 16,219.5로 우리보다 輸出入比가 크게 輸出편으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밖

(42) 1968. 1~7 月の 合板輸出은 31.831 千달러이고 그 輸入은 28 千달러였다. 韓國銀行, 『外換統計月報』, 7 月號, pp. 46, 108.

의 先進工業諸國에 비하면 우리의 輸出入比率指數가 압도적으로 크다. 즉 같은 기간에 있어 미국의 그것은 79.2, EEC는 128.2, 영국은 34.9, 캐나다는 5.3, 쉬든은 13.6에 불과하다. 결국 EEC를 제외한 歐美先進工業國에서는 綿織物產業은 輸出產業이 아니라 剝陽化해가는 輸入競爭產業으로서의 地位밖에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⁴³⁾

다음 人造纖維織物과 신발류는 급속히 성장하는 輸出產業으로서의 특징을 뚜렷이 浮刻시키고 있다. 1962년에 있어 輸出入比率指數가 1.1로 輸入의 86분의 1에 불과한 수출실적을 갖던 人造纖維織物은 1963년에는 14.3으로 개선되었고 1964년에는 156.9로 유망한 輸出商品으로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1965년에 100.1로의 反落이 있은 후 1967년에는 211.9로 輸出入比率指數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主要市場인 미국의 輸出入比率指數가 219.2로 매우 크고 또 重要 경쟁국인 日本의 그것이 734.7로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새로운 輸出商品의 前途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다만 EEC에서의 그것은 81.1, 영국은 34.3, 「캐나다」는 3.9, 「쉬든」은 7.1로 매우 낮다는 것은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발類는 1962년 당초부터 輸出入比率指數는 컸지만 輸出規模도 지극히 미미하며 별 의미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나, 1965년 이후는 그 규모도 百萬달러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指數는 1967년에는 62,607.7로 커졌다. 그리고 그것은 主要輸出競爭國인 日本의 27,597.0보다도 큰 것이다. 신발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EEC의 輸出入比率指數가 435.3으로 EEC의 輸出品중 第2位를 차지하고 있으나 指數의 크기면에서는 우리와는 비교가 안되며 그밖의 나라는 모두 낮다.⁽⁴⁴⁾ 끝으로 鋼板의 경우 第17表의 資料는 그것이 輸出入比率指數라는 比較優位基準에 설 때 輸出品일 수 없으며 1963~1965년을 頂點으로 하여 指數의 크기가 급속히 하락되어 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輸入競爭產業일 수도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3. 主要輸出市場에서의 market share

끝으로 韓國商品의 比較優位를 輸出競爭力의 大小라는 顯現된 면에서 밝히고자 할 때 우리는 輸入國에 있어서의 對韓輸入의 share를 고찰할 수 있다. 第18表의 資料는 그 基礎로서 이상에서 분석한 主要輸出商品이 주로 어느 나라에 수출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할 때 合板, 신발類는 1966~67년 평균 90% 이상이 미국에 대하여 수출되며 生

(43) 小島清 등, 『前掲書』, pp. 80~81.

(44) 小島清 등, 『前掲書』, pp. 80-81. 美國의 指數는 6.6, 영국은 65.5, 「캐나다」는 18.8이다.

<第 18 表>

重要商品の輸出方向

(단위: 千달러)

品 目	1966				1967			
	총수출액	第 1 位國	수출액	比	총수출액	第 1 位國	수출액	比
合 板	30,481	美國	28,704	94.2%	41,366	美國	37,166	89.8%
生 絲	11,358	"	9,149	80.5	17,788	"	8,817	49.6
綿織物	8,304	"	3,553	42.8	12,234	"	4,447	36.3
신발類	5,145	"	5,020	97.6	7,436	"	6,565	88.3

資料: 韓國銀行, 『外換統計月報』, 1967年 12月號에서 作成.

絲와 綿織物도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이 美國임을 알 수 있다. 1967년의 對美輸出依存도가 42.9%인데 비하여 合板등 主要品目の 對美輸出依存도가 66.0%라는 것은 우리의 主要輸出産業이 미국을 주요한 市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을 주요수출시장으로 대표시켜 미국의 輸入에서 한국의 個別商品이 차지하는 share를 살펴보기로 한다.

第 19 表의 資料는 이를 나타낸다. 우선 生絲에 관하여 볼 때 1965년에서 1967년 上半期에 이르는 동안에 日本의 share는 52.5%에서 11.2%로 크게 줄어들고 그대신 한국과

<第 19 表>

美國市場에서의 市場占據率

生 絲	수입총액	日 本	韓 國	이 테 리
1965	19,997	52.5	29.0	18.5
1966	22,838	34.2	38.6	26.1
1967	10,590	11.2	51.6	34.9
綿 織 物		日 本	韓 國	홍 콩
1965	133,667	29.1	2.5	14.2
1966	156,713	26.1	2.3	17.2
1967	74,964	24.4	—	19.6
신 발 類		日 本	韓 國	캐 나 다
1965	44,923	85.0	6.8	1.7
1966	42,403	80.9	8.2	0.9
1967	24,575	79.7	4.6	自由中國 6.1
合 板		日 本	韓 國	캐 나 다
1965	170,610	29.6	11.8	19.9
1966	200,317	27.9	16.8	17.5
1967	83,792	25.2	—	19.8

註: 1967年은 上半期計數임.

資料: 日本貿易振興會, 『海外市場白書』, 1968年版, 統計篇, pp. 82-87.

이태리의 進出이 현저하다. 특히 한국은 1966년부터는 미국의 生絲輸入의 가장 큰 供給國이 되고 있다. 더구나 1966년 현재 수출의 80.5%까지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生絲가 III의 3의 분석에서 보듯(第12表 및 第14表) 輸出數量指數는 1963년 이후 계속, 그리고 輸出單價指數는 1964년 이후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참작할 때 미국시장에서의 韓國生絲輸出增大 및 그 相對的인 share의 증가는 dumping 등 非正常的인 수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經濟的 諸要因의 변화, 특히 日本에서의 生絲產業의 相對的 停滯에 의해 한국 生絲產業의 比較優位가 相對的으로 커지고 또 그간 있었던 蠶業振興策이 生絲生産의 絶對的 水準을 높혀 이것이 比較優位의 改善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綿織物의 경우 對美輸出은 相對的으로 매우 미약하다. 미국의 對韓綿織物輸入依存度는 1965년에 있어 2.5%에 불과하고 1966년에는 2.3%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절대액의 증가도 3,313千달러에서 3,842千달러로 15.8% 증가에 불과하며 1966년의 輸出增加率 42.9%에 훨씬 미달하다. 한편 日本도 1965년의 29.1%에서 1967년 上半期에는 24.4%로 현저히 줄어들고 그대신 홍콩이 14.2%에서 19.6%로 커지고 있다. 美國市場에의 綿織物輸出이 상대적으로 정체하고 있는 것은 제네바 綿織物協定에 의한 自主規制 quota에 더 크게 영향받는 것이지 比較優位의 변화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신발類의 경우 미국의 對韓輸入依存度는 1965년의 6.8%에서 1966년의 8.2%로 커지고 있으며 그 절대액로 1966년의 5,020千달러에서 1967년에는 6,565千달러로 30.8%나 커지고 있지만 日本의 share가 1966년 현재 80.9%에 비하면 지극히 미약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1967년 上半期에 있어서는 종래 第3位였던 「캐나다」를 꺾히고 自由中國이 급속히 進出하여 6.1%의 share로 한국의 4.6%를 앞서 第2位로 올라서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일본의 對美 신발류輸出이 1965년의 38,165千달러에서 34,319千달러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현저히 줄어드는 데 틈타 自由中國이 그 餘白을 뚫고 들어간 때문이다. 따라서 輸入 share의 변화라는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발類輸出產業의 比較優位는 自由中國의 그것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合板의 경우 미국의 輸入規模는 1965년보다 1966년에 더욱 커지고 있는데 日本의 share는 해마다 떨어지고 1967년에 있어서는 年率로 보아 그 絶對額도 줄어들고 있다. 한편 第2表의 輸出國인 캐나다의 share도 第19表에서 보듯 停滯하고 있으며 第3位 輸出國인 「필리핀」도 16.4%에서 15.4%로 약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share는 1965년의 11.8%에서 1966년에는 16.8%로 커졌고 그 絶對額도 第5表에서 보듯 해마다 커져가고

對美輸出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比較優位の 변화가 생겨서 이처럼 美國의 合板輸入의 國別依存度가 달라진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第13表에서 보듯 1962년 이래 해마다 輸出單價指數의 下落이라는 희생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外部的으로 外貨稼得率이 下落이라는 희생⁽⁴⁵⁾과 内部的으로는 附加價值率下落이라는 희생⁽⁴⁶⁾ 위에서 실현된 것이라 보아야 옳을 것 같다. 즉 比較優位の 유리한 변화를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輸出單價引下를 통한 外貨稼得率下落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것으로 給與率引下등의 수단으로 輸出增大라는 政策要求⁽⁴⁷⁾ 副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對美輸出에 있어 share가 큰 輸出商品으로 假髮을 들 수 있다. 美國輸入市場에서의 share는 1965년에는 「홍콩」 43.5%, 日本 18.2%, 「프랑스」 13.8%이었던 것이 1966년에는 「홍콩」 27.1%, 「프랑스」 13.5%, 日本 10.7%로 순위가 뒤바뀌었고 1967년 上半期에는 한국 46.0%, 「필리핀」 26.2%, 日本 8.8%로 한국의 진출이 현저하였다. 한편 1966년 上半期에 있어서는 한국 27.6%, 「프랑스」 20.2%, 日本 6.7%로 1966년 이후 특히 1967년에 있어 韓國假髮의 對美進出은 현저하다. relative share index 또는 輸出入比率指數등 지금까지 援用한 두 分析手段에 의한 比較優位分析은 불가능하였지만 假髮이 高度로 勞動集約的인 것이며 要素賦存比率說的인 比較優位說明에 의할 때 勞動이 비교적 풍부하고 優位를 가진 生産要素라는 점등을 생각할 때 美國輸入市場에서의 韓國假髮의 market share 증대는 比較優位の 한 顯現이라고 할 수 있다.

IV. 結 論

이상으로써 1962년 이후 主要輸出商品으로 등장하여 수출증대에 현저한 기여를 한 몇가지 商品에 대한 比較優位를 relative share index 및 輸出入比率指數란 두 分析手段을 爲主로, 그 밖에도 여러가지 方法에 의하여 檢證해 보았다. 본래 試圖하였던 바 23個 主要輸出品目 특히 9個品目の 第2次商品에 관한 比較優位の 具體的 檢證과 國際比較는 資料의

(45) 合板의 外貨稼得率은 1965년 10월 현재의 28.9%에서 1966년 10월 현재는 24.8%로 하락되고 있다. 韓國貿易協會 『우리나라 輸出産業의 現況 및 展望과 輸出增進을 위한 研究』 1968. 4, p. 197.

(46) 合板業의 附加價值率은 1963년의 34.7%에서 1966년의 22.7%로 12%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다. 한편 1966년에 있어 製造業전체로서의 附加價值率은 37.4%였다. 韓國産業銀行, 『鑛工業센서스 報告書』, 1963年版, pp. 162-163 및 1966年版, pp. 186-187.

(47) 合板業에서의 給與率은 1963년의 7.3%에서 1966년의 6.5%로 하락되고 있는데 이는 1966년에 있어 製造業전체의 給與率 9.1%보다 2.6%포인트나 낮다. 韓國産業銀行 『前揭兩書』, 同一面參照.

不備, 力不足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綿織物, 人造纖維織物, 編物製品 등 3 個 第 2 次產品과 鮮魚, 生絲 등 2 個 第 1 次產品이 커다란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具體的인 計數에 의하여 밝혀진 것 같다. 合板은 reative share index 나 輸出入比率指數 또는 輸入國輸入 share 의 變化 등 모든 基準에서 커다란 比較優位가 있는 것이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輸出單價指數의 傾向的 下落은 無條件的인 斷定을 어렵게 한다. 만일 그것이 技術革新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리고 III 의 3 에서 본 바와 같은 外貨稼得率 附加價值率 및 給與率 등의 下落이 技術革新으로 인한 것이라면 relative share index 를 비롯한 여러 指標의 敎示는 肯定的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技術變化가 없는 상태에서 輸出單價의 引下를 통해 세가지 指標가 개선될 수 있었다면 이는 比較優位의 相對的 喪失로 해석함이 옳다.

重石, 無煙炭, 鐵鑛, 水產物 그리고 아마 쌀까지도 供給側面만을 생각할 때 比較優位가 있고 또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같은 特殊한 生産要因의 賦存量 및 勞動力이라는 一般的 生産要因의 賦存量 및 質을 기준으로 Heckscher-Ohlin 定理的 接近을 할 때 쉽게 判定되는 일이다. 그러나 經濟開發을 위한 輸出產業育成 및 輸出增大라는 戰略面에서 볼 때 특별한 理論分析이나 政策措置의 對象이 될 수 없다. 그 첫째 이유는 그 輸出은 相對國의 輸入需要에 의해 一義的으로 결정되는데 둘째 그 需要가 停滯의이고 所得 및 價格에 대하여 非彈力的이라는데 있다.

이처럼 回避할 때 主要輸出商品의 比較優位를 實證的으로 分析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粗略的으로나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分析의 보다 廣範한 輸出品目에의 適用, 國內支出의 變化와 輸出供給과의 相互關係, 比較優位強化에 미치는 政策支援의 效果 등은 技術變化가 比較優位에 미치는 動態的 衝擊과 아울러 다음번의 課題로 남는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助敎授〕